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호

부쉬의 ≪년두교서≫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

조선외무성대변인 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1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1월 30일 미국대통령 부쉬는 국회에서 한 ≪년두교서≫라는데서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을 테로와 억지로 련관시켜 힘으로 압살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부쉬는 우리 나라가 대량살륙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함부로 걸고 들면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에 대해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등 갖은 악담을 다 쏟아 놓았다.

부쉬는 계속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오만하게 폭언하였다. 집권초기부터 우리에 대한 망발과 험담만을 일삼아 온 부쉬이지만 그의 이번 망발에는 명백히 불순한 정치적목적이 있다. 부쉬행정부가 들어 앉으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마찰이 빈번해 지고 국제관계가 전례 없이 소란해 졌다는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민주당행정부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심각한 경제불황이 나타나고 뉴욕의 세계무역쎈터와 워싱톤의 미국방성청사에 대한 대규모습격사건이 일어 났으며 행정부가 련루된 대형부정추문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쉬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대외정책과 정치적미숙성, 도덕적부패성에 기인된다.

현대테로공격의 화살이 왜 미국으로만 쏠리고 있으며 왜 부쉬의 집권시기에 와서 극심해 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실은 모든 화근이 부쉬행정부의 무분별한 강권정책에 있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쉬는 흑백을 전도하여 자기의 반동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산생된 국내외의 모든 비난을 ≪테로≫의 탓으로 돌리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부쉬가 이번에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쳐 보려는 무모한 기도를 드러 내놓은것이다.

근래의 조미관계력사에 미국대통령이 직접 정책연설을 통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나라에 이처럼 로골적인 침략위협을 가한적은 없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다.

새해에 들어 선 년초부터 부쉬의 입에서 이처럼 험악한 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우리는 무심히 지나 칠수 없다.

부쉬의 망발은 최근 미국이 들고 나온 우리와의 ≪대화재개≫제안의 속심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때문에 현 미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때 만들어 놓았던 대화를 통한 핵, 미싸일문제해결의 가능성까지 다 줴버리였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할 기도를 공개표명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경계심을 가지고 취해 온 립장이 얼마나 정당하였으며 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그쯘하게 갖추어 놓은것이 얼마나 선견지명한 정책이였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가면마저 벗어 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고 있는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하여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주제 넘게 줴치기 좋아 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압살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 버릴것이다.

조선외무성대변인 성명

1 부쉬의 ≪년두교서≫는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

노작

2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세기와 더불어

4 제1장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칭송

6 ≪남녘 땅에도 비가 내려야 하오≫
조선은 통일되리 /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

한국민족민주전선

7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공조책동
8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분쇄하는 것은 현실의 요청
8 구국의 소리 뉴스
9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
9 미국이 이북을 걸고드는 진의도

광고

7 인터넷구국전선에 백두산3대장군 동영상 게재

조선중앙통신

10 1월 31일 보도
11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자 (로동신문사설)

김일성종합대학방송강좌

12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의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

아리랑뉴스

13 미 전문가들, 북, 이란 관련 부시 발언 비판
13 평통사, 부시방한 결사반대와 무기강매 저지 결의
13 부시방한저지와 GM 규탄 반미결의대회
14 공동실천, 반전평화 서명용지전달 기자회견
14 한반도 전쟁위협중단과 평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운동강좌

15 사회주의사회에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광고

15 6.15주간 제32호

조국통일3대헌장

16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2)

주체87(1998)년 4월 18일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습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이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노선과 분열노선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자주요, 북과 남의 화해요, 단합이요 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이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민족적 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결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 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 역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사상감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 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 기초로 됩니다. 더욱이 민족분열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을대로 다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요구로 나서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는 민족공동의 투쟁의 기치,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대업을 위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공통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 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것없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펴나가는 광폭정치는 만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이며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실시하여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대오에서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한때 길을 잘 못 들었던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 뿐 아니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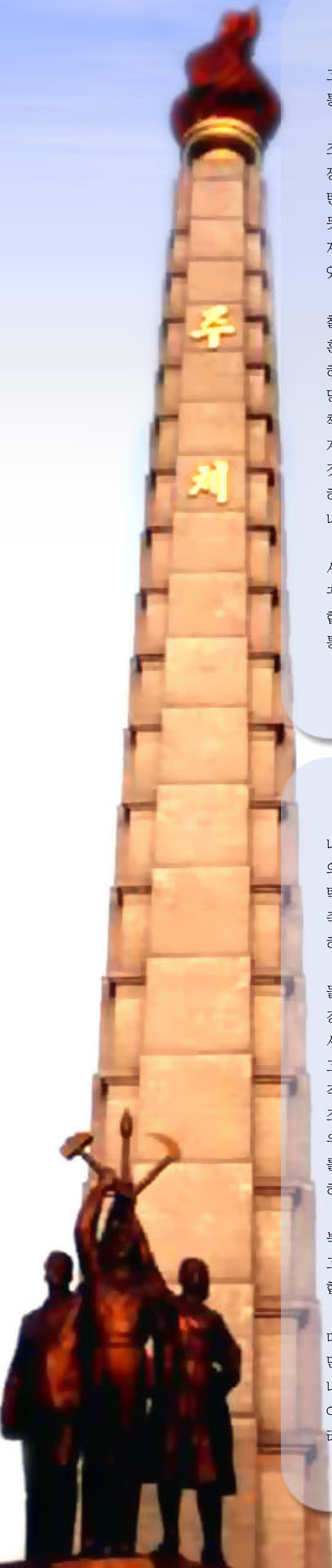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북과 남의 화합을 가로막고 각방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저해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의 반북대결정책은 북과 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적 단결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과 남사이에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

→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반드시 대단결을 이룩할 것입니다. 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우리 대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의 역대통치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선행통치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의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반북대결의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책전환을 하여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법률과 기구를 철폐하고 온갖 정치적 장벽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남조선의 역대통치자들을 반대한 것은 그들이 집권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한 것은 남조선 역대통치자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반통일정책, 매국배족행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입장, 연북단합의 입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은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분열하여 통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미국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부추기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외세의 부추김과 조종 밑에 역대 남조선통치배들은 분단의 장벽을 쌓고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을 분열, 와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이와함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은 분열주의자들의 교활한 이간, 와해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나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층인사들과 인민들은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지상의 요구로 내세우고 단결을 강화하며 통일애국의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사이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널리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해나가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이념을 안고 내왕과 접촉, 대화와 조직적인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는데 대화의 마당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대화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모든 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북남대화는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독점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대화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연대연합하여 공동행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오늘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도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반드시 대단결을 이룩할 것입니다. 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우리 대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끝)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1)

1권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1. 우리 가정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3. 독립만세의 메아리
4. 타향에서 타향으로
5. ≪압록강의 노래≫
6. 나의 어머니
7. 유산

아버지 김형직선생님

나의 아버지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집에는 물론, 순화학교와 명신학교 등 이르는 곳마다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붓글씨로 큼직하게 써붙이였다.

지금도 아버지의 필적이 더러 남아있지만 아버지는 붓글씨를 괜찮게 썼다.

당시는 서예를 숭상하던때여서 명사나 명필들의 글을 받아 족자나 현액, 병풍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멋으로 알았다. 나도 철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일반서예로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그 글씨에 어떤 표구도 하지 않고 그저 눈에 잘 띄우는 곳에 붙여두었다.

내가 철이 들자 아버지는 나에게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려면 큰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원≫이란 문자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뜻을 원대하게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별로 특이할 것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념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아버지는 왜 큰뜻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사와도 같은 것이였다.

…우리 조선은 원래 국력이 막강한 나라였다. 무예가 발달하여 싸움에서 패한 적이 별로 없고 일찍부터 문화가 개화하여 그 빛이 바다건너 일본땅에까지 비쳐갔다. 그런데 그렇게도 강성하던 나라가 리조 500년의 썩은 정치로 일조에 망국의 비운을 들쓰게 되었다.

네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왜놈들이 총칼로 우리 나라를 먹어버리었다. 왜적들에게 국권을 팔아먹은 역신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신들도 조선의 얼만은 팔아넘길수 없었다.

의병들이 창을 들고 ≪왜멸복국≫을 부르짖었다. 독립군은 화승대로 이 땅에 침노한 원쑤들을 쓸어눕히었다. 때로는 인민봉기의 만세함성과 돌팔매질로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적을 치고 사람마다 울부짖어 인류의 량심과 세계의 정의에 호소하였다.

최익현은 대마도로 잡혀갔어도 원쑤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으로 순국하였다. 리준은 제국주의렬강대표들의 면전에서 스스로 배를 갈라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고 안중근은 할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격살하고 독립만세를 웨쳐 조선사람의 기개를 과시하였다.

환갑이 넘은 강우규로인까지도 사이또총독의 면전에 폭탄을 던지였다. 리재명은 망국의 한을 풀려고 단도로 리완용을 찔렀다.

민영환, 리범진, 홍범식과 같은 애국충신들은 자결로써 국권수호를 호소하였다.

한때는 우리 민족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눈물겨운 운동까지 벌이었다. 국채란 로일전쟁후 일본에서 꾸어다 쓰고 갚지 못한 1,300만원의 빚을 말한다. 이 빚을 갚으려고 온 나라 남자들이 담배를 끊었다. 고종황제까지도 단연으로써 이 운동에 합세하였다. 녀자들은 반찬값을 아끼고 패물을 내놓았다. 혼수감을 바치는 처녀들도 있었다. 부자집의 상노와 침모, 떡장사, 나물장사, 짚신장사까지도 나라의 빚을 갚느라고 땀에 절은 푼전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독립을 보존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나라를 찾겠다는 한마음한뜻으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켜 원쑤를 쳐물리칠만큼 힘을 키우는 것이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힘을 기를수 있고 힘만 기르면 능히 강적을 물리칠수 있다.

온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고 불러일으켜야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일은 하루이틀에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의 손목을 잡고 만경봉에 오르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애국주의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아버지는 언제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후날 삼사년이면 끝장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항일무장투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갈 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상기했고 해방후에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상반되는 길을 걷고 있은 민족분렬의 장구한 비극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에 새삼스럽게 숙연한 생각을 금치 못하였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품고계시던 ≪지원≫의 사상과 신념, 조국광복에 대한 사상과 지향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집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때에 아버지가 강심을 품고 숭실중학교에 들어간 것도 바로 ≪지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아버님으로부터 혁명주의교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갑오개혁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10년 남짓한 기간은 우리 나라에서 내정개혁의 파도를 타고 때늦게나마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던 때였다. 신교육의 봉화를 들고 서울에서 배제학당이요, 리화학당이요, 육영공원이요 하는 학교들이 설립되어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배워주고 있을 때 서선지방에서 미국선교사들이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학교가 바로 숭실중학교이다.

숭실중학교는 전국적판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신학문을 숭상하는 청년들이 이 학교를 많이 지망하였다. 력사, 대수, 기하, 물리, 위생학, 생리학, 체육, 음악과 같은 숭실중학교의 현대적인 교과목들은 나라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조류에 발을 맞춰나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 아버지도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다니였다고 말씀하였다. 4서5경을 비롯하여 서당에서 힘들게 배우는 구학문은 아버지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내세운 교육목적과의 관계없이 숭실중학교에서는 후날 독립운동선상에서 큰 활약을 한 이름있는 애국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상해림시정부 의정원의 초대부의장을 거쳐 의장식을 력임한 바있는 손정도도 이 학교 출신이였고 림정말기에 국무의원으로 활동한 차리석도 이 학교 졸업생이였으며 재능있는 애국시인 윤동주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중퇴한 사람이였다.

강량육선생도 숭실학교의 전문반을 다닌분이였다. 당시는 이 전문반을 숭실전문학교라고 불렀다. 숭실중학교란 숭실학교안에 있는 중학반을 말한다. 숭실학교에

서 반일독립운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이 학교를 배일사상의 책원지라고 하였다.

≪글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기술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며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아버지는 이런 사상으로 학우들을 깨우쳐주면서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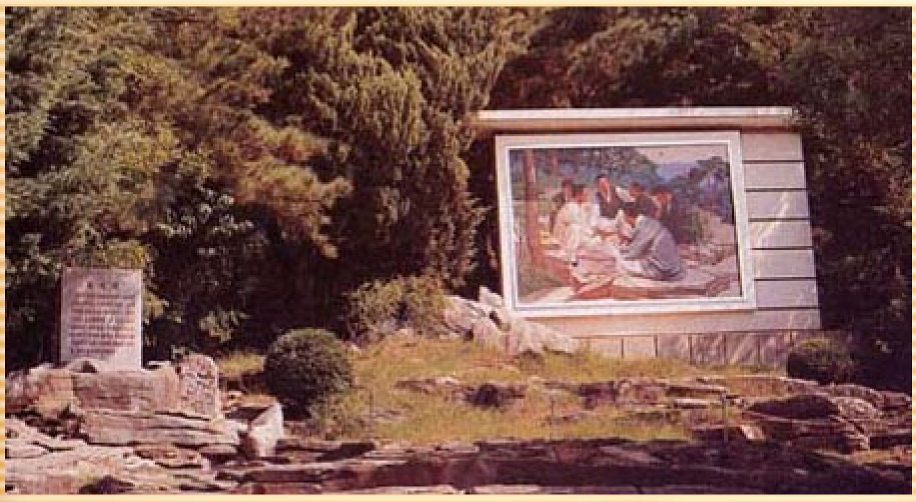
아버지의 지도밑에 숭실중학교에는 독서회와 일심친목회가 조직되였다. 이 단체들은 학생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평양과 그 주변 일대에서 적극적인 대중계몽활동을 벌이였으며 1912년 12월에는 교내에서 학교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착취행위를 반대하는 동맹휴학까지 조직하였다.

아버지는 중학공부를 하면서도 방학이면 안주, 강동, 순안, 의주 등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의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니며 대중계몽과 동지획득을 위한 활동을 벌이였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 얻은 제일 큰 소득은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많이 획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숭실중학교 동창생들가운데는 우리 아버지하고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도량도 크고 식견도 넓고 인격도 뛰어난 명망높은 청년선각자들이였다.

그런 동창생들가운데서 평양사람으로서는 리보식을 들수 있다. 리보식은 독서회에도 일심친목회에도 다 관여하였는데 후날 조선국민회조직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3.1인민봉기 때에도 큰 활약을 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비밀회합장소로 이용하시던 봉화산의 바위터

우리가 봉화리에서 살 때 그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명신학교에도 여러번 왔다갔다.

평안북도출신의 동창생들가운데는 백세빈(백영무)이라는 피현사람이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평안북도땅에 갈 때에는 이 사람이 길안내를 많이 하였다. 그는 조선국민회의 국외통신원이였다. 1960년 12월에 남조선에서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결성되였는데 백세빈은 그때 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박인관은 숭실중학교시절에 우리 아버지와 한기숙사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처음 얼마동안은 아버지도 기숙사생활을 하였다.

1917년 봄에 박인관은 황해도 은률에 나가 광선학교 교원을 하면서 조선국민회에 망라되였다. 그는 송화, 재령, 해주등지를 오가면서 동지들을 규합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1년동안 해주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 그가 광선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학생들이 쓴 ≪반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작문들이 지금도 은률사적관에 전시되였다. 그 작문을 보면 당시 조선국민회의 영향밑에 있던 학교학생들의 사상동향과 정신세계의 일단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자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제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은 오동진이였다.

그가 우리 집으로 자주 드나든것도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였다. 오동진은 그때 안창호가 설립한 평양대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순수한 인정관계를 초월하는 사상적인 교제였으므로 두분의 교제는 처음부터 진지하고 열렬했다. 오동진이 우리 아버지의 사상에 처음으로 공감한 것은 1910년 봄 경상골병대마당(리조말기의 군대병영앞에 있던 훈련장)에서 열린 운동회에서였다고 한다.

오동진

이 운동회에는 평양, 박천, 강서, 영유등지에서 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아버지는 그날 운동회뒤 끝에 있은 웅변대회에서 우리 나라가 문명국이 되자면 일본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우리 나라의 근대화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여 군중의 이목을 한데 모았다. 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가운데 바로 미래의 정의부사령인 오동진도 끼여있었다. 그 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오동진은 ≪그날 김선생이 한 연설이 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고 뜨겁게 말하군 하였다.

그는 1913년경부터 무역상(도매상)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평양, 신의주 등 국내의 주요도시들과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독립운동의 장래를 두고 의논하였다.

그무렵에 벌써 송암 오동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뜨르르했다. 재산이라든가 배경을 보면 어려운 혁명을 하지 않고서도 살수 있는 사람이였지만 그는 직접 손에 총을 들고 일제와 싸웠다.

오동진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우애심이 지극하였다. 의주의 그의 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바깥채는 통채로 그런 손님들을 위한 숙소로 리용되였다. 손님들이 하도 많아서 식모도 따로 데려다가 전문적으로 손님들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갈 때만은 바깥채가 아니라 안채에 모시고 그의 부인이 직접 부엌에 나섰다고 한다.

한번은 오동진이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다녀간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할머니는 그들에게 기념으로 밥바리를 선물하였다.

내가 오동진을 이처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친구이고 동지라는데도 있지만 나의 청년시절과 깊은 연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와의 사이에 각별한 정을 느끼었다. 내가 길림에서 공부할 때 오동진은 일제에 의해 체포되였다. 썩 후날 내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려고 간도일대를 돌아다니던 1932년 3월초에 그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간디의 예심기록문건이 2만 5,000페지나 된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랐는데 오동진의 예심기록문건은 무려 3만5,000페지로서 64책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를 재판하던 날 방청자가 수천명이나 법정으로 쓸어들어서 아침부터 한다던 재판을 오후 1시가 지나서야 겨우 시작하였다. 오동진은 일체 심리를 거절했으며 재판장의 자리에 뛰어올라가 조선독립만세까지 불러 법정을 흔들어놓았다.

당황망조한 일본재판관들은 황황히 공판을 중단하고 피고도 없이 어물어물 판결을 해버렸다. 상소심에서 종신징역으로 구형되었으나 오동진은 끝내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옥사하였다.

우리가 유격대를 꾸리느라고 매우 어려운 싸움을 버리고 있을 때에 그의 고결한 절개와 투지를 반영한 공판기사와 그후 평양감옥으로 호송되는 용수를 쓴 사진이 신문에 공개되였다. 나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오동진의 드팀없는 애국심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았다.

이와 같이 숭실중학교시절에 아버지와 친근하게 지낸 사람들이 적지 않게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났고 후날 조선국민회의 골간으로 되였다.

아버지는 숭실중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만경대의 순화학교와 강동의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에 힘쓰는 한편 동지규합에 심혈을 기울이였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중퇴한 것은 혁명활동무대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실천투쟁을 벌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1916년에 방학을 리용하여 간도에 다녀왔다. 무슨 줄을 타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간도를 거쳐 상해에 가서 손문의 국민혁명파와도 련계를 맺었다. 아버지는 손문을 중국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중국에서 남자들이 머리태를 자르고 매주 하루씩 휴식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도 부르죠아개혁파들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특히 손문이 중국혁명동맹회의 강령으로 내세운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와 5.4운동의 영향밑에 새롭게 내놓은 련쏘, 련공, 부조공농의 3대정책을 찬양하면서 그를 도량이 크고 의지가 강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혁명가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손문이 중화민국을 수립한 후 공화정치제도의 수립과 청나라 황제의 퇴위를 조건부로 원세개에게 총통의 자리를 양도한 것은 실책이였다고 말씀하였다.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조선의 부르죠아개혁운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여러번 들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이 지도한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개화당이 내놓은 혁신정강중 인권평등, 문벌페지, 인재등용,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페절을 암시한 독립사상 등은 모두 진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김옥균을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개혁운동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근대력사가 달라질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미련까지 가지였다.

김옥균의 개혁운동과 정강에서 제한성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본것은 그후의 일이다.

명신학교

우리에게 조선력사를 배워주던 선생들은 대체로 김옥균을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 학계에서도 오래동안 김옥균에게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였다. 그가 정변준비과정에 일본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친일의 표적으로 되였다. 우리는 이것을 공정한 평가라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력사학자들에게 김옥균의 개혁운동에서 인민대중과의 결합에 주의를 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잘못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힘에 의거하였다고 그것을 친일로 평가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진다, 그가 일본의 힘을 리용한 것은 친일적인 개혁을 단행하자는데 목적이 있은 것이 아니고 당시의 력량관계를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개화당의 편에 유리하게 전환시키자는데 있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전술이였다고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의 정변이 ≪3일천하≫의 운명을 면치 못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개혁파들이 백성들의 힘을 믿지 않고 궁정내부세력에만 의거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내일 계속됩니다)

명신학교 내부

일화

남녘 땅에도 비가 내려야 하오

1984년 어느 봄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어느 한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어제 밤 기상통보에 의하면 오늘 우리 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였는데 정말 비가 오는지 확인하여 보고 알려달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그이의 분부대로 날씨를 알아보고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것을 전화로 그이께 알려드렸다. 그러자 마음이 놓이시는 듯 그이께서는 그럽됐습니다 시름이 놓입니다 지금 북반부지역이건 남반부지역이건 비가 내리지 않아 큰 걱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가 씨 붙임으로 바쁘던 그때 어인 일인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다. 관개망이 발전한 북반부에서는 산간지대의 다락밭들과 뙈기밭들을 내놓고는 씨 붙임이 거의 끝나고 있었지만 남조선농민들은 물이 모자라 아우성이였다. 남조선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신문들에는 ≪아이고 비는 왜 안오노.≫라는 기사가 실리는가 하면 농촌 아이들은 ≪비야 비야 어서 오라 참새둥지 불났다≫라는 노래까지 불렀다.

이런 때 비가 온다니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하늘의 조화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여서 일군은 때때로 창밖으로 하늘을 쳐다보군 하였다. 점심때가 지나자 대륙성 저기압이 밀려오면서 한소나기 잘 퍼부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또다시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여 한 소나기 퍼부으니 합토가 잘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락밭들에 씨붙임이 안 될가봐 근심하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비가 우리 나라의 전반적 지역에 다 오겠다고 예보하였는데 예보가 맞았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였다.

일군은 여러 곳에 전화를 걸고 기상관측소에도 알아보니 대체로 북반부지역은 많은 비가 내렸으나 남반부지역은 적게 왔는데 밤에 또 한차례 비가 온다는 것이였다. 그는 즉석에서 비내린 정형을 그이께 보고 드리였다.

날이 어둡자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사업보고도 하고 결론도 받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집무실에 도착하여 사업보고를 하는데 우레가 울었다.

하지만 사업보고도 끝나고 결론받을 문제도 결론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나 밖에서는 비가 내리는 기미가 없었다. 일군이 비가 오기 전에 퇴근하실 것을 권고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가 좀 더 와야겠는데 더 기다려보자고 하시는 것이였다.

그이께서 남조선지역에 비가 적게 내린 것 때문에 심려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린 일군은 너무 심려하지 마시라고 말씀 올리며 제나름의 생각을 터놓았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놀라우신 듯 일군을 주시하시다가 엄엄히 말씀하시였다.

≪무슨 소리를 하오. 그래 남녘 땅은 내 나라 내 땅이 아니란 말인가? 남녘겨레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이 아니란 말인가?≫

밖에서 지동치는 우레 소리가 그대로 울려오는 듯 싶었다. 일군은 노하신 그이의 음성에 어쩌줄을 몰랐다.

≪남녘겨레들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아갈 게 아니요. 그러자면 남녘 땅에도 비가 내려야 하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맞춤 밖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다급히 송수화기를 드시고 어딘가를 찾으시더니 남녘 땅에도 비가 오는가를 알아보라고 하시였다.

잠시 후 남조선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전화가 오자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며 기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남녘 땅에도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일군을 바라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실언을 하였다고 반성하는 일군에게 자리를 권하시고 자신께서도 곁에와 앉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늘 남녘동포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

나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도 남녘겨레들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남녘겨레들을 생각하면서 조국통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송시

조선은 통일되리

쿠바시인 카르멜로 가르시아 페르난데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않으시었어라
저 분열의 장벽 너머
남녘의 동포형제들을!

하기에 그들 모두가
영원한 삶을 주는
불변하는 태양과도 같이
그분을 믿고 따르며 우러러 모시어라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여!
한 핏줄로 이어진 남녘의 동포들도
위대한 영도자이신 당신만을 믿고 따르며
통일의 그날을 위해 싸워 나아가리라

통일의 그날
남북의 어린이들 손에 손잡고
장벽과 가시철조망을 넘고 넘어
즐겁게 뛰놀게 되리라

이해의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조국통일이거니
영웅적 조선민중들
기어이 제 손으로 성취하고야 말리라

흠모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

≪수령이 위대하면 당도, 나라도, 민족도 빛나며 미래도 휘황하다. 어느 나라, 어느 당, 어느 민족이건 과거도 귀중하지만 내일이 더욱 소중하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영도하시는 주체의 나라, 다시 말하여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조선은 미래가 창창하며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오직 승리만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은 진리이다.≫(가나정부상 디. 에스 보아뎅)

≪오늘 **김정일**각하께서는 온 인류로부터 21세기를 이끄실 가장 노련한 정치원로로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다. 이것은 각하께서 조선혁명과 온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이집트 무역 및 공급성 제1부상)

≪오늘 조선은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전형으로 되고 있다. 조선민중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다른 나라들에서 수십년이 걸려서 할 일을 불과 몇년사이에 해제끼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사상이론의 천재,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네팔노동자농민당 위원장 나라얀 만비죽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업을 영도하여 오시면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세계에는 그분처럼 위대한 민중적인 영도자, 최고사령관은 아직 없다.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영도가 있기에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고 조선민중의 주체위업과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미래는 휘황찬란한 것이다.≫(구 소련국방상 드미트리 야조브)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의탁하고 마음 속 깊이 우러르며 따르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양심과 숭고한 사상감정은 5대륙 방방곡곡에서 태양만세의 환호성으로 열화같이 분출하고 있다.

정녕 **김정일**각하를 모시어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김정일**강성대국으로 만방에 이름떨치고 다가오는 21세기는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이태리국제연구소 총서기 쟝카를로 엘리아 발로리)

우심해지는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공조책동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1월 31일

사회자 : 아시다시피 한미호전집단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져서 내외민중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관해 얘기나눴으면 합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은 이미 벌써 한반도가 분단된 때로부터 자행됐다고 하겠죠. 아시겠지만 이 땅을 식민지군사기지로 언제까지나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해서 이북뿐 아니라 전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것, 이건 미국의 변함없는 대아시아침략전략이 아닙니까. 힘에 의한 승공통일은 이 땅에 있는 호전집단의 변함없는 대북전략이고 이런 목적의 공통성으로해서 한미호전집단들은 벌써 분단직후부터 시종일관 북침전쟁을 위해 공조해왔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범죄적인 공조책동이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새해들어서 아주 우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선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을 위한 전쟁모의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데서 잘

알수가 있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이 이북을 걸고들면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적극적인 지지자들로 알려진 3명의 미국회의원이 지난 3일 내한해서 한국의 호전분자들과 한미군사공조체제강화에 대해서 모의를 했고 17일에는 악명높은 대북주적론자들인 미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패거리들이 한국에 날아들어 이 땅의 호전세력들과 북침을 위한 전쟁공조강화에 대해서 모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쟁내각의 우두머리인 미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미합참의장이 내한해서 한국 군부호전집단과 일련의 전쟁모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중순에는 침략전쟁의 수괴인 미국대통령 부시가 직접 서울에 행각해 한국의 고위호전분자들과 북침을 위한 전쟁모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는 미국이 1차적으로 북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 새해들어 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이 더욱 우심하게 자행되고 있는 건 미국이 이북을 걸고 더욱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부시행정부가 있지도 않은 이북의 미사일공격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이른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는 새해에 들어 그 책동을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 부시행정부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정하고 미국방부안에 미사일방위 제일을 맡아보는 부서를 승격시켜서 미사일방위국을 내왔고 북의 미사일공격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한반도상공을 작전무대로 하는 공중레이다무기개발 등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예산을 작년보다 무려 57%나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미연합사령부안에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까지 내왔어요.

이번에 이미 내한했거나 내한 할 미국호전분자들이 한국호전계층과 중요하게 밀담했거나 하려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한국호전집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자 : 실제로 한미호전집단은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서 깊이 공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에 이용되는 스탠다드미사일 수직발사체계인 ≪엠케이41≫을 한국에 넘겨주기로 했고 북한 근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배비해야한다면서 우리 나라 동해에 최신형 요격미사일 30기를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배비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호전집단은 자체로 이 같은 이지스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건 한미호전집단들이 미사일방어체제의 핵심장비로 되고 있는 미사일요격레이다를 이 땅에 끌어들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이 지난해에 있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군사적 가치를 상실했거나 필요없게 된 일부 주한미군기지들을 반환의 명목으로 한국에 돌려주는 대신 평택, 오산, 의정부 등 전연과 가까운 부대들과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들만 골라 제공받기로 한 것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따른 병력의 재배치를 위한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사회자 : 한미호전집단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은 부시행정부가 미국에서 9.11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구실로 불순한 목적이 숨어있는 이른바 ≪반테러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자 한국호전집단이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테러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는 구실로 전역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정세를 격화시킨데서도 드러났고 또 ≪주적불변론≫을 제창한 국방부장관 김동신이 ≪올해에는 한미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데서도 잘알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래서 한미호전광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고폭격에 사용했던 미사일을 광주에 처음으로 배치하고 한반도 유사시 69만여명의 증원무력과 각종 함정 160여척, ≪에프18≫전투폭격기 등 1600여대의 비행기를 전개시키기로 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이에 편승해서 한국호전집단도 새 회계년도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각종 미사일과 함정, 최신형전투폭격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한미군사당국의 호전적 공모책동은 최근 들어와서 더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던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세와의 공조는 매국이고 동족과의 공조는 애국입니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통일해야할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북압살을 노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적극 가담하며 반북대결과 북침전쟁책동에 공조해나선 이 땅의 군부호전세력이야말로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민중이 미국 부시행정부의 범죄적인 대테러전쟁확대책동에 야합해 나선 이 땅의 호전세력의 공모결탁행위로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엄중한 위기에 직면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분격을 표시하며 한미호전세력들을 단죄규탄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죠. 대결은 전쟁이죠. 그리고 전쟁은 민족공멸이라는 것, 이건 누구에게나 명백한 건데 우리 민중은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중이 한미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을 저지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또 6.15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이행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회자 : 한미호전집단은 범죄적인 북침전쟁공조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인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켜야하며 우리 겨레의 자주적 통일에 더 이상 난관을 조성하지 말아야합니다. 각계 민중은 한미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공조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인터넷구국전선 백두산3대장군 동영상 게재!

인터넷구국전선에 내나라컴퓨터사에서 만든 동영상파일이 게재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구국전선에는 4개의 동영상파일이 게재되어 있으며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파일들은 우리 민족민주대오만이 아니라 광범한 국민대중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동영상파일들은 누구나 다 인터넷구국전선(www.ndfsk.dyn.to)에 접속하여 그 압축파일을 쉽게 내려받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나라컴퓨터사의 활동을 널리 소개하는 사업과 함께 그 모범을 따라배워 입체적인 영상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반통일세력의 책동분쇄는 현실의 요청

노동자 농어민 시간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1월 28일~29일

지금 이 땅의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북에서 발표된 공동사설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며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이 호전분자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나설 걸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1300만 노동대중 아니 온 민족의 한결같은 자주통일열망과 한반도에 조성된 현정세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지극히 정당한 호소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노동대중의 자주통일열망과 의지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노동대중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고 그 누구에게 의존함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내야한다는 자주의식을 더깊이 새겼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의 6.15공동선언실천투쟁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통일운동의 주역임을 당당히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6.15공동선언이 있어 민족자주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안고 통일운동에 더욱 과감히 분기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혹합니다. 미제는 이 땅에 더욱더 많은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저들의 범죄적인 대북압살정책의 실현을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확약한 6.15공동선언정신에 어긋나게 외세와 야합해서 대북압살정책에 의연히 매달리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분자들의 도전도 그지없이 악랄합니다.

그들은 지난해 반민족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로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사이의 대화를 파탄시키고 이산가족교환방문까지 가로막고도 성차지 않아 새해에도 여전히 주적론을 떠들어대면서 남북관계를 대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제와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정책이 빚어내는 악결과는 매우 엄중합니다.

한반도의 정세는 날을 따라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고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발표이전의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민족공조,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경향각지에서 2002년에는 6.15공동선언으로 열린 정세가 상승발전하는가 아니면 선언이 휴지조각으로 되어버리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제와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온 민족의 드높은 자주통일열망과 의지에 도전해 나선 미제와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이 우리 민족을 전쟁이라는 민족적 대재난속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습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노동대중은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한반도긴장격화의 주범인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합니다. 그리고 미제의 무력증강과 전쟁도발책동을 철저히 분쇄해야합니다.

신형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들을 이 땅에 끌어들여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미제의 무력증강책동을 분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면해서 미제의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합니다. 특히 미국방장관을 비롯한 미제호전광들의 방한을 계기로 주한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들고 반미투쟁을 지속적으로 분출시켜나가야 합니다.

노동대중은 반미투쟁과 함께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야합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그 무슨 ≪주적론≫을 떠들어대면서 외세와의 공조를 고창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적인 책동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이를 힘있게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야합니다.

더욱이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는 극우익보수세력들과의 투쟁을 날카롭게 벌여야합니다.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새해에도 지난해에 보여주었던 자기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해 통일운동의 주인으로써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외호전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1월 31일

미국을 행각 후 역적질만 일삼는 이회창 규탄

이회창이 미국을 행각 후에 동족인 이북을 압살하고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역적질만을 일삼아온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이회창이 상전들 앞에서 주한미군을 ≪전쟁억제력≫으로 찬양하면서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한데 대해 분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의 한국강점으로 우리 민족의 수난에 찬 분단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군이 이 땅을 타고 앉아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우리 민중의 통일열망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서만도 미군은 북을 겨냥한 특수미사일부대를 창설하는 등으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켜 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이건 미국이 흉악한 강점자, 침략자임을 실증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이 이를 외면하고 주한미군을 ≪전쟁억제력≫으로 추어올리면서 그의 영구주둔을 애걸한 것은 흉폭한 이리를 순한 양으로 둔갑시킨 것보다 더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이는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반역을 생리로 살아온 이회창만이 할수 있는 망언이 아닐수 없다.

이 땅을 미국의 영원한 속국으로 떠맡기려는 이회창을 절대로 그냥두어서는 안된다.≫

인천시에서 살고 있는 재야인사 이모씨는 이회창이 들고 나온 ≪전략적 상호주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이 남북문제를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한다고 떠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호주의란 건 하나의 민족인 남과 북의 관계를 서로 다른 두 국가간의 관계로 전락시켜 민족을 영구분열시키려는 반민족반통일논리이다.

그런데 이회창이 이번에 미국상전들앞에서 들먹인 ≪전략적 상호주의≫라는 건 이보다 더 고약한 것이다. 그 내용의 하나가 북의 재래식무기를 감축해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남쪽의 핵무기를 가진 방대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도대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잠꼬대같은 소리다.

어떻게 북이 자기를 먹겠다고 기회만 노리는 침략자가 눈앞에 있는데 재래식무기를 감축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회창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이다. 이회창은 지금 미국의 의도대로 북을 무장해제 시켜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앞잡이가 돼서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헤덤비는 이회창이야말로 가련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회창은 더 늦기전에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민특위, 드러나는 미군의 민간인 학살만행 관련해 긴급성명 발표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는 영국 BBC방송에 의해 미군의 민간인학살만행이 더욱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 1월 26일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민특위는 성명에서 영국 BBC방송에서 6.25전쟁시기 노근리사건외에도 미군의 민간인학살이 수많이 감행됐으며 미군지휘부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살상을 지시한 사실을 밝힌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바로 미군의 학살행위가 한반도전체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행됐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전민특위가 2000년 5월 이후 약 20개월에 걸쳐 미군의 학살만행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청취, 현지조사, 관계기록 발굴 등의 활동을 벌여 남과 북의 여러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참혹한 민간인학살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으며 또 이런 자료들과 증언을 토대로 지난해 6월 뉴욕에서 열린 국제전범법정이 세계양심들 앞에서 미국의 범죄를 단죄하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나 미국이 노근리학살사건과 관련해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며 범죄를 부인해온데 대해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전세계 양심 앞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며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넋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1월 29일~31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와 선로들에는 이정표가 세워져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지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가는 통일의 길에도 이정표가 마련돼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6.15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해나가는데서 확고히 견지해나가야할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남북공동선언에는 조국통일의 본질과 그 해결의 근본원칙과 목표, 그 수행방도가 가장 정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고 남북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우리 민족자신의 위업입니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도 우리 민족 자신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분열의 비극과 불행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통일을 위한 우리 투쟁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6.15남북공동선언이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데 관해 명백히 밝힌 것은 바로 이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나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가장 빠르고 순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히고 있다 하겠는데요.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방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한 것으로 되며 통일문제해결에서의 역사적인 전진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쪽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키고 민족적 재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남과 북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 통일을 이룩해야합니다. 그래야만 남과 북 어느 쪽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순조롭게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의 통일문제를 가장 순조롭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본방도는 연방제방식에 기초한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 이외의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연방제방식의 통일방도를 명시한 여기에 6.15공동선언이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이정표로 되는 근거가 있다 하겠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사이의 인도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참으로 남과 북이 합의하고 온 민족, 온 세계가 지지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온 겨레가 들고 나가야할 민족공동의 통일의 기치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우리 민중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를 굳건히 지켜 싸워야합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반역세력은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부정해나서면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6.15남북공동선언을 견결히 지켜 싸우자≫, ≪남북공동선언을 짓밟으려는 반통일세력들에게 역사의 철추를 내리자≫,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는 온 겨레의 외침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외침에는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켜 과감히 싸워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하겠습니다.

온 겨레는 올해에도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는 통일운동에 다같이 동참해야합니다. 그렇게 할 때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고 7천만 겨레가 갈구하는 통일의 문은 기어이 열리고야 말겁니다.

미국이 이북을 걸고드는 진의도

김세찬 / 구국전선 주체 91년 1월 21일

부시미대통령이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행각한다고 한다. 부시의 행각을 계기로 미국은 또다시 이북의 있지도 않는 ≪핵≫과 그 무슨 미사일개발능력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의 핵잠재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부시의 이번 행각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이후 그 불티를 한반도에로 옮겨놓으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계에서는 ≪탈리반 다음은 누구? 이북을 잊지 말라≫,≪아프가니스탄 다음 테러응징전쟁의 목표가 이북이 될 수 있다≫, ≪광범위한 사찰을 거부할 경우 외교보다는 전쟁이 우선시될 수 있다≫등등 심히 자극적인 제목밑에 ≪반테러전쟁≫의 다음 무대가 이북으로 될 수 있다는 시사기사가 눈에 띄게 나돌았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종결단계에 들어선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미국의 언론들이 부시정권의 이른바 ≪반테러전쟁≫의 다음 목표를 운운하며 ≪전쟁의 우선시≫니 뭐니 하는 극히 도발적이며 호전적인 여론을 내돌리고 있는데 대해 경계심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여론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이후 어떤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겠는가 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올해를 ≪반테러전쟁≫의 해로 선언하면서 아프간에 대한 군사보복작전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북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은 ≪9.11테러사건≫이후부터 아프간전쟁 초기까지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재개≫를 떠들면서 이북과의 그 무슨 관계에 대해 떠들었다. 그런데 아프간사태가 저들에 유리하게 기울어지자 미국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부시정권은 ≪인권≫이요, ≪종교≫요, ≪생화학무기≫요 하는 당치않은 문제들을 연이어 걸고들며 이북에 생트집을 하다못해 북을 계속 ≪테러≫와 억지로 결부시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검증≫문제까지 들고 나오는가 하면 ≪반테러전쟁≫과 결부시켜 이북을 심히 자극하는 태도도 거리낌없이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추이는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니 뭐니 한 것은 기만적인 위장 평화공세였으며 미국이 ≪전략공백≫을 운운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기동타격무력을 전진배비한 것은 아프간후의 작전을 한반도에로 옮기려 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북을 ≪테러≫와 억지로 연결시켜 당치 않는 문제들을 들고나온 것은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와서는 또다시 그 무슨 ≪핵≫과 미사일문제까지 거들며 부시의 한국행각으로 한반도정세를 더욱 긴장격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보면 부시정권이 이북을 ≪테러≫와 연결시켜 생억지를 부리고 ≪테러지원국≫의 감투를 집요하게 씌우는 것은 어떻게 하나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북에 ≪테러≫의 허물을 씌우며 부시의 행각으로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의 작전실현을 점검해 보자는데 그 진의도가 있다.

사실 21세기 부시정권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의 기본고리는 한반도이다. 미국의 호전세력 자체가 이에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 그들은 아시아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군사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한반도에 중점을 두고 대북강경정책을 계단식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만전쟁, 발칸전쟁에서 무사하였고 아프간전쟁도 무난히 치르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북은 방어에도 공격에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 타격력에는 한도가 없다고 재삼 천명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며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인 주한미군을 몰아내야 한다. ≪반테러≫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부시정권의 반북압살, 반통일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부시의 한국행각은 침략행각이며 전쟁행각이다. 전민중은 부시의 행각을 결사반대배격하며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1월 31일

조선간부들이 여러 나라 신임대사들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은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조선주재 이란이슬람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잘랄렛딘 나미니 미안지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한편 백남순외무상은 의례방문하여 온 조선주재 이란이슬람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마지드 부게라를 각각 만나 담화를 하였다.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 진행

전국농업부문 일군회의가 29일과 30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홍성남내각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계응태비서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기타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농업생산정형을 총화하고 조선로동당의 농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창식농업상의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자연기후조건이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현실적조건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작물재배방법을 개선하고 두벌농사, 감자농사를 많이 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렸으며 황해남도토지정리를 비롯한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린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또한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서는 과업이 제기되였다.

3대호소와 3대제의에 호응해 나설것을 호소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채종만회장이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였다.

그는 27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해내외동포들은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재로동포들은 이번 합동회의 제안에 따라 내외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을 단호히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합동회의에서 제시된 3대호소와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민전≫대변인 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대변인이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2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가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발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각계 민중은 애국애족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기치 드높이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민족통일대행진에 총분기해 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각계 민중은 내외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주적론≫을 철회시키고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아래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호응하여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총 매진함으로써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으로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민족단합의 유일중심
부산시 주민들 칭송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부산시내의 각계층주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프로이상이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견해에 긍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민족단합의 중심, 구심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단합의 유일한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그 리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통일경륜과 탁월한 지도력,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겨레사랑과 민중사랑, 지난 평양상봉때 목격한 절세의 위인상 등으로 꼽았다.그들은 ≪온 겨레가 그분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면 가까운 앞날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의 숙원을 성취할수 있을것≫이라는 락관을 표시하였다.

≪빛나는 별의 나라≫ 도서발행식
에짚트에서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에짚트아랍예술문화공보협회 총서기인 에짚트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칭송하여 도서 ≪빛나는 별의 나라≫를 집필하였다.

이 도서발행식이 26일 아시아아프리카도서동맹 상임사무소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혁명활동과 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에짚트아랍예술문화공보협회 총서기는 발행식에서 **김정일**각하는 근 40년간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면서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조선혁명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치고 계시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조선인민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기념도서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발행식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새해공동사설을 60여개 나라에서 지지

조선의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가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동사설은 사회주의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기상을 반영하고 있다.

네팔의 까뜨만두에서 정계, 사회계, 출판보도계 인사들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사설에 대한 통보모임이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파키스탄, 인디아, 마다가스까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나이제리아, 뻬루 등 세계 60여개 나라의 정당, 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서 토론회, 강연회, 독보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공동사설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진행되였다.

한편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기네통일진보당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등 여러 나라의 당지도자들과 정당, 단체들, 국제 및 지역기구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담화와 성명을 발표하거나 기자회견과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사회계는 지난해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와 정력적인 대외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민이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으며 나라의 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자 (1)

로동신문사설 주체 91년 1월 14일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뜻 깊은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엮으시며 강성대국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 세차게 끓어 넘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주체사상의 승리의 력사이며 그 걸음걸음마다에는 당과 수령의 선군령도와 업적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과 혁명의 력사는 곧 수령의 력사이며 그것은 혁명의 영원한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재부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세계 그 어느 위인의 전기에도 비길수 없는 불멸의 혁명실록을 창조하신 희세의 정치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특히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오신 나날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절세의 위인의 영웅서사시로 주체혁명의 년대기에 빛나게 아로새겨 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펼친 영광스러운 년대기이며 우리 민족이 영원히 존엄 떨치며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수 있는 한없이 고귀하고 풍부한 전통과 업적이 마련된 긍지 높은 력사이다.최악의 역경을 헤치시며 빛나는 승리와 기적으로 수 놓아 진 영웅서사시를 단신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령도업적이 선군혁명실록에 집대성되여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커다란 견인력과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 혁명의 교과서로, 흘러간 수백수천년의 민족사에도 비길수 없는 **김일성**민족의 제일 가는 국보로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시대적귀감을 창조한 성스러운 실록이다.

수령영생은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을 엮어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총적목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총대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는 주체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으신것은 만대에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선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견지하여 오신 혁명방식이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완성해 나갈수 있는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이다.총대를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 쥐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견지명과 용단에 의하여 그처럼 어려웠던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혁명의 붉은기가 굳건히 수호되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게 되였다.조국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만대에 길이 전해가야 할 고귀한 재부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주체혁명의 계승완성을 위한 백전백승의 경험과 업적이 집대성된 불멸의 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단순한 력사의 기록이 아니라 혁명투쟁의 심오한 철리를 가르쳐 주는 백과전서이다.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유화전술에 혁명적원칙성으로 대답한 필승의 력사도,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혼연일체의 대풍모를 활짝 꽃 피운 일심단결의 력사도,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도 선군혁명실록에 담겨 져 있다.선군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나날에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우리 식의 정치체제가 확립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류례없이 간고한 환경속에서 백전백승을 떨쳐 온 고귀한 투쟁경험과 업적을 담고 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금을 틀어 잡고 있다.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에서 필승의 신념과 투지를 가다듬고 투쟁과 전진의 길을 찾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 있다.

절세의 위인의 성스러운 력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다.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은 앞으로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천만년 세월이 흐른다 해도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선군혁명실록과 같은 위대한 령도자의 성스러운 실록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더 없는 긍지이며 자랑이다.

오늘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해 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로 틀어 쥐고 나가는 충직한 군대이며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에는 우리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모든 사상정신적풍모가 집대성되여 있다.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실록에 비껴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위인적풍모를 심장깊이 새기며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가적풍모를 따라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녀도 위대한 장군님의 붉은 기철학에 기초한 철의 신념을 지니고 계급의식으로 무장해도 총대와 같이 사소한 에누리도 모르는 장군님의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을 따라 배우며 인생관을 세워도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장군님의 숭고한 인생관을 체득해 나가고 있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실록을 혁명적수양의 교과서로 틀어 쥐고 나가는 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는 더욱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 우리 혁명대오는 2000년대의 ≪ㅌ.ㄷ≫열혈투사들의 대오로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 쥐고 나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에는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고귀한 재부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다.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무거운 력사적과제들이 나서고 혁명의 전진도상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들이 겹쌓여있지만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이 차넘치고 있다.총대를 앞세우고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 백승의 투쟁경험이 집대성되여있는 선군혁명실록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갈 때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다.

민족최대의 뜻 깊은 혁명적명절들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업적을 전면적으로 꽃 피우기 위한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실록을 **김일성**민족의 만년국보로,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그것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백전백승의 선군사상을 신념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은 주체위업완성의 백승의 보검이다.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이 있었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빛나게 결속되고 사회주의 수호전의 백승의 력사가 창조될수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뼈와 살로, 철석 같은 신조로 삼고 오직 그대로만 사고하고 숨 쉬는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가 되여야 한다.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사상은 불멸의 로작들의 갈피갈피마다에 뚜렷이 아로새겨 져 있다.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 특히 최근년간에 발표된 로작들을 자자구구 새겨 가며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갈 드팀 없는 각오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 나가야 한다.

(내일 계속됩니다)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의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역사강좌 제162회

박상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 91년 1월 25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의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사회주의의 군사적 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질 것을 절실히 요구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선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성과 우리혁명의 준엄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독창적인 군사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군사사업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정치에서 군사를 어떤 지위에 놓는가 하는 것은 관건적 의의를 가집니다. 군사는 사회주의의 운명입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중시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군사중시사상의 핵은 인민군대가 혁명의 기둥이고 주력군이며 군대이자 당이고 당이자 군대라는 것입니다. 혁명적 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해 줘야 그 불패성이 담보되며 혁명군대는 혁명적 당의 영도를 받고 당이 군중을 조직동원해 줘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에 최대의 국사로 지정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혁명영도에 관한 사상이론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정립한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론입니다. 군사중시의 정치, 선군혁명영도의 정치는 총대로 시작되고 총대로 개척되어온 우리 혁명위업을 총대로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이며 백전백승의 혁명철학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수령 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핵무기보다 위력한 것이 사상이고 신념입니다. 따라서 군대의 위력은 총을 쥔 군인들의 정신력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찍이 독창적인 군인중심의 군건설이론을 내놓으시고 전군 주체사상화 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기 위하여 온갖 심열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군인이 오중흡 7연대의 결사옹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었습니다. 전군이 오중흡 7연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는 것은 인민군대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도록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수령결사옹위 정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우리 인민군대가 빛나게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총대로 결사옹위하는 것은 인민군대의 전통적인 풍모이며 최대의 사명입니다.

전군이 오중흡 7연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우는 것은 다음으로 당시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혁명을 보위하는 투쟁은 그 수뇌부를 옹위하는 투쟁입니다.

1990년대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했습니다. 적들의 도전과 반공화국 책동은 더욱 악랄하고 흉포해졌습니다. 사회주의 위협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은 반혁명적 공세의 과녁을 혁명의 수뇌부에 돌렸습니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속에서 혁명의 수뇌부를 어떻게 옹호보위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민과 혁명의 운명뿐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의 운명, 인류의 전도와 관련되는 관건적 문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성과 조성된 정세의 요구 인민군 장병들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으로부터 주체85(1996)년 1월 1일과 1월 7일에 인민군 지휘성원들 앞에서 오중흡 7연대를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강령적 말씀을 주시면서

≪인민군대앞에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연대가 되자!≫

라는 충성의 구호, 투쟁의 구호를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우리 인민군 장병들을 항일무장 투쟁시기 혁명의 사령부를 한목숨바쳐 보위한 오중흡 7연대처럼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총폭탄이 되어 결사옹위하는 제1친위대 제1결사대로 만들데 대한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해 1월에는 최고 사령관 명령 ≪인민군대 안에서 오중흡7연대칭호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를 하달하셨습니다.

오중흡7연대칭호 쟁취운동은 전군이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의 사령부를 한목숨바쳐 보위한 7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우리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불길속에서 인민군 군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전투훈련, 사업기풍에서는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으며 김명조, 전광선 영웅들과 같은 참다운 충신들,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 우리 인민군은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기둥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떤 강적이 덤벼들어도 무자비하게 짓뭉게 버릴수 있도록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시였습니다. 전쟁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인 동시에 힘의 대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훈련을 일당백의 기본열쇠로 내세우시고 군인들이 전투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치를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군사지식과 무쇠같은 체력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간부 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금성친위 강건종합군관학교, 차광수비행군관학교, 김정숙해군대학, 김형곤통신병군관학교를 비롯한 군관학교를 비롯한 군사간부양성의 원종장들을 찾으시고 지휘관 양성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서 혁명자 유자녀들을 혁명무력의 핵심골간으로 후비간부로 전망성있게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86(1997)년 10월 12일 만경대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서한 ≪만경대 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나갈 핵심골간 양성기지이다.≫와 주체86(1997)년 1월 1일 만경대 혁명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학원에서 혁명무력의 핵심골간들을 튼튼히 키워 졸업생들 속에서 뛰어난 군사지휘관, 정치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군사분야에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많이 육성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이를 위한 투쟁에서도 전래없는 성과가 이룩되게 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이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타격섬멸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그쯘히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통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시였습니다. 주체86(1997)년 한해동안에만도 60여차에 102개의 군의 인민군 부대들을 현지지도하셨으며 그 로정은 3만여리나 됩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86(1997)년에 이어 주체87 (1998)년에도 강행군 전투를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인민경제의 여러부분을 찾으시어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긴장한 현지지도의 나날 속에서도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셨습니다. 험로 역경의 먼길을 헤쳐온 조선혁명에 있어서 주체97(1998)년은 참으로 어려운 시련의 해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던 설날 아침부터 조선인민군 제333군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부대들을 시찰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어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부대관리로부터 전투 정치훈련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보살펴 주시면서 군인들의 소박한 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고 전사들과 검소한 야전식사도 함께 나누시었습니다. 또한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동보총 쌍안경을 비롯한 귀중한 선물들을 안겨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쌍둥이 병사, 모녀군인을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 군인들을 만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혁명적 영군술의 빛나는 귀감으로써 각 군정 병정장병들에게 백전백승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 무적필승의 담력을 안겨주었고 부대들의 전투력 강화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강력한 원군기지를 가진 백전백승의 강군으로 강화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인민군군인들을 사회주의 건설장들과 농업전선에 동원시켜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지게 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을 청류다리와 군인동굴, 평양향산관광도로와 안변청년발전소. 석탄과 전력생산부문, 정방산과 구월산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장에 불러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연이어 일떠세우게 하시는 한편 수많은 농업전선에로 동원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81 1992년 2월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을 벌리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의 군민일치 모범군쟁취운동과 우리농장 우리초소 우리공장 우리초소 우리학교 우리초소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선 다음으로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긍정적 소행을 제일로 높이 평가해 주시며 원군기풍을 적극 발휘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당의 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전군이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꽉 들어찬 우리당의 제1근위병 제1결사대로 준비되었으며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격파할 수 있는 현대적이며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시간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령도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미 전문가들이 북과 이란관련 부시 발언비판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북과 이란을 이라크와 함께 대량파괴무기를 개발중인 ≪악의 축≫에 포함시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지가 31일 보도했다.

유에스에이투데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 이란 및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명시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대량파괴무기 개발 국가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같이 전했다.

이 신문은 외교정책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들 3국중 어느 나라도 미국에 대한 최근의 테러공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부시대통령이 이라크정권을 ≪악마≫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지만 여기에 북과 이란을 싸잡아 넣은 것은 잘못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센터의 군축전문가 토니 코즈먼씨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의 관계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클린턴 행정부가 열어놓은 대조선 관계의 대안을 폐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군축전문가 리 페인스타인씨는 부시대통령이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 ≪선제공격≫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공격받기를 기다렸다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들 3개국은 매우 다른 나라들이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밖에 조지아대학 부설 국제문제연구센터의 박 한 소장은 부시대통령의 발언이 그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김대중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통신 2002/02/02

평통사, 부시방한반대 무기강매 저지 결의

평통사 12차 국방부 앞 월례집회 개최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부시가 이번 방한을 통해 F15-K 100대의 구매를 강요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부시 방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폐기≫를 촉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월례집회를 해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29일 낮 12시 12차 월례집회를 갖고 부시 방한 결사 반대와 무기강매 저지를 결의했다.

평통사는 성명서 를 통해 ≪100억 달러(13조원)에 달하는 100대의 F15-K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며 부시정권을 규탄했다. 또 국방부가 이를 도입한다면 ≪국가와 민족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경원(평통사) 공동대표도 F15-K는 ≪이미 폐기 처분될 비행기라는 것≫을 언론에서조차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차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경원 공동대표는 또 부시 방한의 배경은 ≪(한국을) MD 정책에 가담시키는 것과 보잉사 F15-K 100대 강매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부시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 는 국방부에 대해서는 차세대 전투기 평가방안을 미 보잉사의 F15-K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제시하여 F15-K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부시정권이 100대를 강매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국방부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죄과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반대 국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향린교회, 통일 벗,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주한미군철수 운동본부, 그리고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투쟁과 무기강매, 그리고 비자주적인 국방부의 행태에 대한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8개 단체로 구성된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제 단체 연석회의≫도 지난 24일 모임을 갖고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
통일뉴스 2002-01-29

부시 방한저지와 GM 규탄 반미결의대회

▷ 일시 : 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종묘공원
▷ 주최 : 전국민중연대

핵심요구
- 구조조정 · 정리해고 강요 GM 규탄!
- 한미투자협정 체결반대!
공기업 민영화 강요 중단!
-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쟁위협 중지! 평화협정 체결!
- 무기구입 강요 반대! MD반대! 평화군축 실현!
- 용산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 철수!

◎ 확전을 통해 전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을 즉각 공격하였으며 일정정도 승리했다고 보면서 전쟁의 불길을 전세계로 퍼트리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하면서 확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군사기지를 이미 습격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전세계 평화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분단으로 고통받는 한반도 민중들에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 무기강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조원에 이르는 무기를 강매함으로서 자국 내 제고 무기를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또한 용산미군기지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주한미군의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를 반환하라는 요구는 1000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이며 4천만 민중들의 요구이다. 또한, 전동록씨 감전사고를 통해본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모습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역사의 죄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 계획을 거의 확정하고 있는 것다는 것은 자신들이 한반도를 떠나지 않고 영구주둔하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미국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경제침탈을 자행하며 대우자동차를 GM에 헐값으로 매각하려고 추진하는 등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 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개최될 ≪전쟁위협 · 내정간섭 · 경제침탈 부시방한저지와 GM 규탄 반미결의대회≫!

확전을 통한 세계 평화위협, 무기강매 및 한반도 전쟁 분위기 조장,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미국 대통령 부시의 방한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저지시켜 냅시다.

공동실천, 반전평화기자회견

31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미 대사관 앞.

≪당신들, 지금 불법행위 하는거야!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야? 왜 사람 가는 길을 막고 그래?≫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똑같은데 이 길로 가세요≫

부시방한 항의서한과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요구하는 범국민서명 용지를 전달하려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대표단과 경찰사이에는 이렇게 미 대사관으로 가는 길 3미터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표단은 바로 앞 경찰이 막고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경찰은 한쪽 옆으로 돌아 미 대사관으로 가라고 해 서로 마찰을 빚었다.

참가자들은 ≪왜 한국경찰들이 미 대사관에 과잉충성을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자존심이 상해 도저히 안되겠다≫며 미 대사관 직원이 직접 서명을 받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마찰은 약 1시간 가량 계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심한 욕설과 기자들의 취재까지 방해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결국 대표단의 요구대로 경찰이 길을 열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은 상자 4개 분량의 서명용지와 부시방한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 경비책임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서명용지 전달 및 부시방한 항의서한 미 대사 전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반전평화공동실천 활동 경과보고와 미국정부에게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과 평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낭독으로 이어졌다.

공개서한을 통해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미국이 확전시도를 중단하고 패권적인 정책을 수정할 것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부시의 연두기자회견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분단고착화 정책과 무기강매 등의 부시방한 목적이 변경되지 않을시 범국민적인 부시방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지난 해 11월 600여개 사회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지금까지 반전평화 범국민대행진, 총 51,651명이 서명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요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서명용지가 든 상자

이날 기자회견과 전달식은 최근 부시가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을 포함, 잇단 강경발언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시점에서 열려 향후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끌었다.

한반도 전쟁위협중단, 평화촉구 공개서한

수신 : 주한미국대사
발신 :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제목 : 미국정부에게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과 평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1.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한국의 600개 단체가 연대하여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화단체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이 벌이는 대아프칸 전쟁과 한국군의 파병 및 전비지원, 일본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인들의 뜻이 담겨 있는 전쟁반대 서명지를 귀하에게 전달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아프칸 전쟁이 시작된 후 해가 바뀌었으나 전쟁의 먹구름은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아프간의 무고한 양민에 대한 폭격과 포로들에 대한 집단학살, 인권유린으로 인류가 그토록 증오하는 폭력의 무자비함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9.11테러에 대한 전세계인의 분노와 슬픔은 어느새 미국이 벌이는 추악한 전쟁에 대한 솟구치는 분노와 거센 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인류의 정의와 양심은 미국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국은 아프칸 포로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 비인도적 행위를 중단하고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군의 폭격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양민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 ·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전쟁은 더 큰 보복과 전쟁의 악순환을 가져 올 뿐이라는 인류 양심의 경고는 안타깝게도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에 치를 떨고 있는 인류 앞에 부시대통령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라크, 필리핀등으로 전쟁터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을 겨냥하여 동북아 지역의 전쟁가능성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전쟁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MD강행, 생물무기협약(BWC) 무산, ABM 조약의 일방적 탈퇴선언, 핵실험 동결 방침 철회, 무려 48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의 증액요청 등 최근 귀국정부의 일방주의적 패권정책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이 없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뜻이 있다면 전쟁확대와 무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패권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해 타국에 대한 주권유린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폐쇄하고 평화군축을 단행함으로써 지구촌 국가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주호혜평등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부시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강경정책을 펴 왔으며, 특히 최근 부시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북한을 악의 세력으로 지목하여 미국이 다음 전쟁의 대상으로 북을 겨냥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던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귀국 정부가 남북간의 통일을 도와주기는커녕 한국의 분단을 이용하여 남북간의 평화선언을 가로막고 한반도에서 골육상잔의 전쟁을 다시금 강요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남의 희생을 댓가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인류의 양심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가장 사악한 자국 중심의 패권적인 정책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귀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지금 한국 국민들은 오는 2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예정된 귀국의 부시 대통령 방한에 대해 대단히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지렛대 삼아 한국정부에 대해 한미투자협정체결과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강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국의 대통령이 한반도 분단을 이용하여 북쪽에 대해서는 대북적대정책을 통해 전쟁을 시도하고 남쪽에 대해서는 경제적 종속과 식민지 수탈을 강요하기 위해 방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범국민적적 항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 귀국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6.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와 전세계의 평화세력, 양심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이 땅에 빈곤과 수탈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귀국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2002년 2월 1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녹색연합, 민중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환경운동연합, 전국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학작가회의, 자통협, 통일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운동연합, 전농, 전빈련, 민언협, 민교협, 다함께, 인권실천시민연대, 한살림 등 600개 사회단체)

사회주의사회에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한 견해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 주체 91(2002)년 1월 25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주체81(1992)년 12월 21일)에서 주체사회주의사회에서 지난 기간 ≪광범한 민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여 공고발전하여 온 우리 인민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이 오늘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역량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가르쳐주시면서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지반의 참다운 면모≫라고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하며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밑에 인민정권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의 대표자이며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조직입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공고발전시키는 길이며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이 자기의 의사와 염원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세우고 관리운영하여 나가고 있는 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은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갑니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권이라는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인민정권의 본질적 우월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종교인이나 민족자본가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웠으며 오늘도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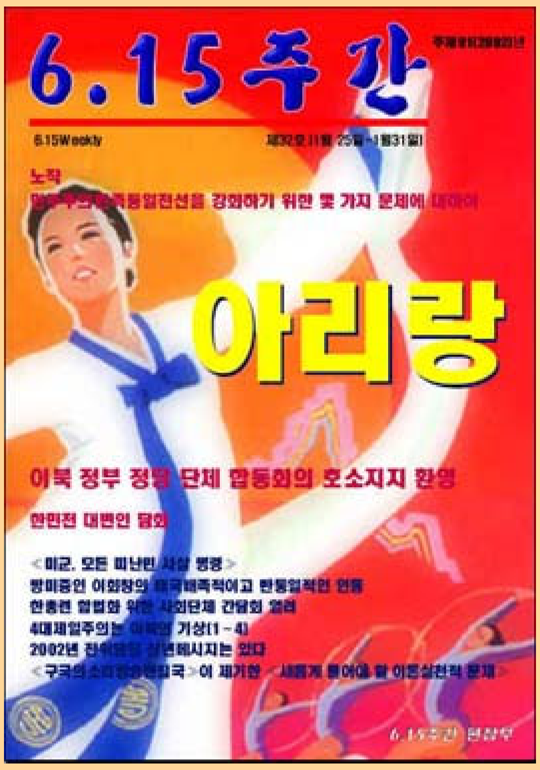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여 공고발전하여 온 우리 인민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은 오늘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된 역량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정권은 사회의 모든 계급, 계층을 사회공동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사회계급적 관계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 관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적극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웠으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지반의 일심단결은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대중의 관계를 비유하여 말하자면 복숭아의 속씨, 씨, 살의 관계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살이 잘 익어야 씨가 튼튼히 보호되고 잘 여무는 것처럼 인민대중이 오직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운명개척의 유일한 자양분으로 삼고 살며 투쟁할 때 당이 강화되고 수령의 영도가 빛나게 실현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지적으로 굳게 뭉쳐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정권의 사회정치적 지반은 그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습니다. 수령, 당, 대중이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 것이 바로 우리 인민정권이 의거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지반의 참다운 면모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의 공고성과 생활력을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은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영도입니다.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사회주의정권건설에 관한 사상과 이론이 창시되고 시대와 혁명의 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되며 수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정권이 마련되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에서의 정권활동 방향이 제시됩니다. 노

→

광고

6.15주간 제32호 (주체91, 1/25~1/31)



노작 -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특집 1 - 아리랑
특집 2 - 이북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호소지지 환영
한미전쟁공조책동을 성토함
한민전 대변인 담화
금강산사랑연대(준), 북 아태위에 실무예비회담 제의 예정
양대노총, 방북 불허 규탄 성명발표
≪미군, 모든 피난민 사살 명령≫
방미중인 이회창의 매국배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언동
한총련 합법화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열려
4대제일주의는 이북의 기상(1)
2002년 전위당의 신년메시지는 있다
≪구국의소리방송편집국≫이 제기한 ≪새롭게 풀어야 할 이론실천적 문제≫

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고 이끄는 영도자이며 사회주의정권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 건설의 무기입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떠난 사회주의정권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정권의 정치는 곧 노동계급의 수령의 정치이며 사회주의정권의 정치와 위력과 생활력은 노동계급의 수령의 정치의 위대성에 달려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는 단결의 정치입니다. 인민대중의 단결은 사회주의정권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인민대중은 단결하여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오르신 첫 시기부터 단결을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으로 보시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단결의 정치를 베푸시어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면 너그럽게 포옹하십니다. 오늘 수령님의 단결의 정치는 각계각층의 군중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이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밑에 강력한 혁명의 주체에 의거하여 그 위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 민주, 단결, 인덕정치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수령님의 영도 밑에 주체의 정치이념,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정권의 위대한 견인력과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망라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다른 정치조직도 있습니다. 다른 정치조직들이 일정한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을 움직이는 정치조직이라면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휘하는 전사회적인 정치조직입니다. 사회주의정권은 사람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권한뿐 아니라 사회의 재부를 관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정권은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을 수행합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집단주의 사회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정권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그 계승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정권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며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정권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정권으로 만들고 그 혈통을 대를 이어 영원히 고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령의 사상과 영도는 당의 영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할 사명을 지니고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대, 향도자이며 인민정권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입니다. 당의 영도 밑에서만 인민정권은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고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는 인민정권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의 영도는 인민정권의 생명선입니다. 현실은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가 보장되지 못하면 인민들이 정권을 잃게되며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도, 행복한 생활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에 대한 당의 영도를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온갖 경향과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인민정권안에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높여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당의 영도 밑에 풀어나감으로써 인민정권을 영원히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정치적 무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한민전이 최근년 ≪구국의 소리 방송≫의 ≪변혁의 진로≫시간을 통해 발표한 글, ≪통일전선 운동의 방법과 통일전선의 유형과 형태≫ 중 일부이다. 주권전취 이후에는 통일전선이 정치적 동맹의 형태에 머물지 않고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의 형태를 띤다고 밝혀져 있다.

≪다음은 주권 전취 이전 시기의 통일전선과 이후 시기의 통일전선의 유형과 형태를 봅시다. 매개 나라의 통일전선 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의한 주권 전취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며 따라서 두 가지 통일전선 형태가 있게 되는데요. 이 양자는 다같이 반변혁 세력에 비한 변혁운동 역량의 우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권 전취 이전 시기의 통일전선은 변혁운동 역량이 아직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못한 여건에서 통일전선 대상들과의 사업을 통해 변혁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주권을 전취하는데 주되는 목적을 두고 상호 다른 사상과 정견 신앙을 가진 여러 계급 계층과의 정치적 동맹의 형태를 띠고 진행됩니다. 그러나 주권 전취 이후 시기의 통일전선을 주권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영도가 보장되고 변혁운동의 역량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여건에서 변혁운동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통일전선 대상들을 변혁운동 발전에 상응하게 사상적으로 교양 개조해서 이미 쟁취한 주권을 공고히 하고 공동의 변혁운동 과제 수행에로 이끌어 나가는 데 지대한 목적을 두고 정치적 동맹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의 형태를 띠고 진행됩니다.≫

지난해 말 최성원동지가 피력한 통일전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견해, 정확히 표현하면 북측의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는 주체는 통일전선체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견해가 우리 민족민주대오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필자는 최성원동지가 위의 내용을 알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일한 맥락의 견해라고 확신한다. 최성원동지는 이러한 견해에 바탕하여 일부단위에서 제출한 북측 통일전선에 대한 견해를 오늘 북측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전선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내일 계속됩니다)

조국통일3대헌장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10대 시정방침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쁠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 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계속됩니다)